

< 회장님 인사말씀 >

1. 여러분, 반갑습니다.
2.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준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특히, 기성전선에서 요구하는 바를 2공장 설계에 잘 반영해 준 예담건축사 무소 장동근 소장님과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 만연건설 박창희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기성전선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1972년 사상공단에서 기성전선이 시작하여 16년 후 1988년에 현재 본사의 위치인 신평공단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5. 그리고 30년 후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곳에 2공장 착공식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많은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6.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와 같은 2공장 건축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성전선의 큰 도전입니다.
7.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가 있듯이 분명히 2공장은 생산공정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게 되어 기성전선의 경쟁력 강화가 될 것이고 이는 분명히 발전의 기회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8. 2가지 당부의 얘기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9. 첫째, 안전입니다. 공사기간동안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성전선 임직원은 물론이고 공사관계자 여러분 모두 각별히 주의하여 완공시까지 무사고를 이룰 것을 당부드립니다.
10. 둘째, 정확한 시공입니다. 30년 전 본사공장을 지을 때만 해도 워낙 시절이 대충 건설하는 시절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화하

여 정확하고 바르게 시공하는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설계대로 올바른 자재를 가지고 올바르게 건축해 줄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11.기성전선은 뿌리깊은 나무입니다. 나무를 옮길 때 정성스럽게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뿌리깊은 나무라도 아플 수 있습니다.

12.새로운 터에서 더 건강하고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봅시다.

13.끝으로, 완공 시까지 여러가지 난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성전선 임직원들과 공사관계자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믿으며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기성전선주식회사

회장 박성용